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 지속을 위한 장소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 공주시 원도심 이주청년을 대상으로 -

이창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1. 서론

최근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단체 중 약 68.6%가 청년단체이며 2017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 50만 명 중 귀농인구 39.4%, 귀촌인구 67.9%가 40대 이하 청년세대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살고 싶은 곳에서 하자'라는 모토 아래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정착하고 소통하면서 지방중소도시를 혁신과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지역만의 독특한 식음료를 개발하고 숙박, 카페 등을 조성하며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청년들의 활동은 단순히 지역기반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모종린, 2021). 이에, 지자체는 지역산업을 창출하고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주청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지역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기본조례」, 「청년지원조례」, 「청년발전 조례」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62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2021년 기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청년 지방이주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총 118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고 연속지원 또는 후속지원이 없는 단발성 사업이 대다수인 결과 나타났다(장민영 등, 2021).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를 지속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동기반 지원 외에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정주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렐프(Relph)는 장소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하는 데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속성으로 개인에게 안정과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심리외도 깊은 관계를 갖는다. 청년들은 이주한 지역의 낯선 '공간'들을 '장소'로서 받아들이고 지역에서의 안정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감을 얻고 정주를 지속하기 위해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장소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중소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구소멸 대응 방향과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대상지 현황

연구의 대상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원도심 중학동 일대이다. 공주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2021년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2년 4월 기준 총인구는 103,714명으로 201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39세 청년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특히 대상지 중학동 일대는 인접한 동에 비해 청년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중학동은 감영길을 중심으로 지역 내·외부 청년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2019년부터 다수의 청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총 5팀이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공간들이 새롭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장·단기 지역살이, 로컬페스타, 워케이션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외지 청년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2.2 분석 방법

이주청년들의 장소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사진(photo)과 목소리(voice)가 합쳐진 용어로 사진을 기반으로 개인이 느끼는 현상과 개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참여적 행동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론이다. 연구 진행 방법은 연구자는 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가치관을 사진으로 재현한다. 이후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연구자 또는 참여자 간 공유 및 토론하면서 지역문제, 사회의 구조·조직·정책 등의 변화를 위한 제안을 도출한다(Wang&Buris, 1994, 1997; Wang, 2006).

2.3 분석의 틀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7-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Wang, 2006) 본 연구에서는 공주시에 이주한 청년 7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주시 원도심 내에서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4년 동안 거주 및 활동한 청년들로 20대 3명, 30대 4명으로 구성되어 청년 내 연령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주 전 참여자 P.1~6의 6명은 지역 로컬크리에이터가 기획·운영한 3-6주 기간의 지역살이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P.6~7 2명은 약 1년 동안 대상지 일대를 6-7회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주 전·후 지역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년의 기준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는 2022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1:1 심층 인터뷰를 총 7차례 진행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주 원도심 일대 이주청년들의 장소정체성 형성과정과 장소 인식범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 전, 청년들은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하였다. 관광장소, 문화유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및 경관 보다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동네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일상적 공간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흥미는 재방문 및 이주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장소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청년들은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체임,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해당 공간들은 먼저 이주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이자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장소이다. 이는, 외지청년들이 지역을 경험하고 이주함에 있어 기이주 청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였다. 청년들은 카페, 책방 등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에서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과 공간에 대해 친숙함과 익숙함을 느꼈다. 동시에 대도시와는 다른 공간 분위기와 공간에서의 경험은 지역으로의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 후, 청년들은 먼저 이주 전 발견한 공간들을 의미 있는 장소로 인식하였다. 이주 전 발견한 주민들의 일상적 공간들은 이주 후 청년들의 산책, 운동, 출퇴근 등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청년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인접한 역사문화자원에 자주 방문하고 향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광지를 일상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해당 장소들은 청년들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정주를 지속하는 원동력이자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확장된 장소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청년들은 이주 전 형성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주 후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과 장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향이 구체화된 장소를 선택했다. 이주 전 지역 문화·예술공간에서 자신의 취향을 발견했던 청년들은 이주 후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청년들의 지역 인식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청년들은 이주 전·후 감영길 기준 250m 반경에서 지역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활동하였다. 250-500m 사이는 일상적 활동보다는 특정 활동 및 특정 장소를 방문하기 위한 행위가 나타났다. 특히 이주 후 청년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인접한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등으로 활동범위를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청년들의 지방중소도시 이주 및 정착을 통한 지역 인구소멸 대응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본 연구는 공주시 원도심에 대한 청년들의 장소 인식 변화를 읽어 내어 맥락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실제 이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크다. 그러나 포토보이스 방법론은 주관성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관점을 일반화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띤 장소정체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연구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역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므로 향후 다양한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이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1. 모종린(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키.
2. 에드워드 렐프(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3.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4. Wang, C. C.(2006) Youth participation in photovoice as a strategy for community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5. Wang, C. and M. A. Burris(1994) Empowerment through photo novella: Portraits of particip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21(2).